

아르누보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A Study on Art Make-Up applying Formative Features of Art Nouveau Patterns

김 명 지 · 최 경 희⁺
Kim, Myung Ji · Choi, Kyung Hee⁺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Master, Graduate School of Design, Daeg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Abstract

Modern society has provided people with a foundation to live abundant lives with th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and through scientific development, but the environmental problem has surfaced as a side effect. This tendency appears in the tendency for people to return to purity, nature and essential human nature, and simultaneously stresses harmony between people and nature. Purity that is based on naturalness that is not artificial and does not confine the human body, and contemporary society that pursues nature and naturalist tendencies that express nostalgia can be seen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decorative art nouveau style that appeared in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including natural and organic curv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tudy that adopts the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which has naturalist tendencies, with the human body, which is a basic object of nature, in unique and different methods of art makeup. Art makeup is a comprehensive art that expresses the human body, and an art field that can maximize an artist's creative and unique mind. An artist's mind can be expressed with art makeup using different themes and methods and unique presentation methods, or through a collaboration with other culture and art fields. Therefore, this study applied human body photographs as a medium of art makeup, to attempt diverse expressions and a new type of art makeup. This study examin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patterns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Based on the theory of Stephan Tschudi-Madsen, art nouveau patterns were divided into abstract · structural · symbolic art nouveau patterns, flowers and organic art nouveau patterns, linear · flat · symbolic art nouveau patterns, structural · geometric art nouveau patterns, and art nouveau that is applied to many different fields of art such as architecture, industrial arts, painting, sculpture and fashion, and examined. Then, the art nouveau patterns to be used in the artwork of this study were extracted. Next, the idea, types and expression methods of art makeup were theoretically examined, and lastly, examples of art makeup cases that applied patterns with art nouveau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ckground. Based on theoretical examination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were applied to an expression method

that uses painting methods and methods that use objects on photograph media. Then an artwork was produced according to the forms of the 4 theories of art nouveau patterns of Tschudi-Madsen - abstract · structural · symbolic art nouveau patterns. The artworks produced through this study extracted the mobile and organic curve decorations of art nouveau forms and focused on a new method of art makeup expression using a variety of expression methods. A natural beauty was expressed through a combination of art nouveau style and curves of the body, and by applying it to many different angles, this study cultivated a new field of creativity by improving the weaknesses of art makeup, which include requiring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being temporary, and granting infinite creative potential to art makeup.

Key Words : Art Nouveau, art make-up, Madsen

I. 서론

1. 연구의 의 및 목적

오늘날 현대사회는 산업화의 영향과 과학의 진보로 인간에게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환경문제는 황폐해진 자연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인간 본성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자연주의적 경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경향은 순수, 자연 회귀, 인간본성 회귀의 경향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융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르누보는 1880년대와 1890년대에 걸쳐 유럽에서 형성된 디자인 운동으로 당시 기계적인 대량생산과 날로 조야해지는 취미에 저항하는 미술공예운동의 영향 아래, 실생활과 연관된 수공예적 개혁의 노력과 새로운 사회 형태를 추구하는 이념의 일환이다. 아르누보는 아름다움의 새로운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개성의 예술을 위해 역사주의적인 양식의 반복이나 모방을 거부하고 자연의 모든 유기적 생명체 속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조건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에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19세기 초에 나타난 아르누보 양식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활발한 재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간은 원초적으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이 있는데 그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 중의 하나가 메이크업이다.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행하는 표현기법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대한 표현예술로서 예술의 한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술과 인간이 조화된 독창적 예술로서의 아트 메이크업은 고정된 틀을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수단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연주의적 경향의 아르누보의 특징을 인체라는 본질적인 자연물에 독창적이고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적용해 보는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아르누보 양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양에 있어서 아르누보의 역동적이고 율동적인 선과 줄무늬에 관한 이미경(1992)¹⁾의 연구, 구스타프 클림트 회화에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에 관한 이경희(2008)²⁾의 연구, 아르누보 양식의 장식구에 나타난 자유분방한 선과 면에 관한 김경희(2004)³⁾의 연구, 아르누보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꽃무늬의 장식성에 관한 김미영(2003)⁴⁾의 연구, 찰스 레니 맥킨토쉬(Charles Rennie Mackintosh)의 가구에 나타난 단순한 형태에 관한 손지혜(2006)⁵⁾의 연구, 아르누보 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적 적합성에 관한 윤성희(1988)⁶⁾의 연구 등, 디자인의 여러 영역에서 빈번히 차용되어져 왔다. 또한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트 메이크업의 이론적인 배경이나 문양을 인체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최경옥(2009)⁷⁾, 공영희(2007)⁸⁾, 황지호(2007)⁹⁾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메이크업과 바디페인팅 분야에서

도 아르누보 양식을 응용한 작품제작 사례들이 있기는 하나, 특히 문양 분석에 의한 좀 더 세심한 아르누보의 미의식 고찰과 적용사례는 미진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아르누보의 예술 양식에 나타난 정신과 그 사상의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아르누보 시대 예술에서의 자연주의 모티브를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에 적용함으로써, 식물의 자연미와 인체의 자연미를 조화한 아름다운 인체의 미를 예술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여 아트 메이크업의 창작 영역의 확대 모색 및 창조적인 아트 메이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아르누보 문양과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논문 및 저서, 인터넷 사이트 등의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실제 작품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연구로는, 아르누보의 형성과정 및 배경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 문양 도출의 대상으로는 19세기 말 서양회화와 공예, 건축, 조각에 나타난 아르누보 문양의 표현양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작품제작은 인체의 피부 위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매체적 특징을 살려 타 디자인 영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사진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인체의 곡선적 아름다움을 아르누보의 미적 표현과 융합,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인체의 부분사진을 확대, 인화하여 그 위에 아르누보의 문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들을 수작업으로 드로잉 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사진매체에 아트 메이크업을 실행하는 것은 인체에서 표현될 수 없는 부위에 대한 실험과 더불어 섬세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일회적인 작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등 평면 작품에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질감 표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누보의 형성배경 및 개념을 살펴보고, 타 조형예술 분야의 아르누보 작품을 통하여 아르누보의 대표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아트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본 연구의 작품제작을 위하여 아트 메이크업에 아르누보 양식이 표현된 사례와 특히, 본 연구의 중요한 분류방법인 매드슨(Stephan Tschudi-Madsen, 1923~2007)⁽¹⁾의 아르누보 양식에 관한 4가지 이론에 관해 살펴보았다.

넷째, 아트 메이크업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중에서 매드슨의 아르누보 분류방법에 따라 앞서 도출된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을 조합하여, 인체의 곡선이 표현된 사진매체 위에 실제작품을 제작하였다.

(1) 노르웨이의 미술사학자로 19세기 유럽의 예술과 건축, 아르누보라는 고유의 전문분야에 관한 중요한 출판물을 통해 문서화 하여 개척에 있던 아르누보의 재발견을 하였다. 국제 문화유산 활동 및 ICOMOS 노르웨이 설립자로 큰 기여를 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그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고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norway@icomos.no

II. 이론적 배경

1. 아르누보의 형성배경 및 개념

아르누보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모태가 된 예술로 19세기 말 유럽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이른바 벨 에포크 (La belle époque)를 풍요롭고 우아하게 특징지은 예술양식이다. 아르누보라는 이름은 함부르크 태생의 독일인 화상 사무엘 빙(Samuel Bing)이 1895년 파리에서 문을 연 상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아르누보 양식은 파리뿐만 아니라 글래스고우, 브뤼셀, 뮌헨 그리고 비엔나 등지에서 제각기 강조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랐고 각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달랐다. 1890년대 파리에서는 모던 스타일(Modern Style), 독일에서는 1896년 창간된 잡지 이름에서 온 유겐트슈틸(Jugendstil), 비엔나에서는 세세쉰슈틸(Secessionstil), 바르셀로나에서는 모데르니스타(Modernista)로 각각 불렸으나 결국 나중에는 아르누보로 더 알려지게 되었다.¹⁰⁾ 아르누보는 원래 장식미술 및 응용미술과 관련된 양식에서 출발하였으나, 미술과 생활의 통합을 주장하여 회화, 조각, 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1900년을 전후로 하여 완전히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양식이 되었다.

이 양식의 모태는 범 유럽적인 운동인 미술공예운동 (Art & Crafts Movement)이다. 영국의 예술 평론가이고 사회 철학자이자 ‘미학 운동의 창시자’인 존 러스킨(John Ruskin)이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같은 사람들은 미술과 수공예의 철저한 개혁과, 싸구려 대량 생산물 대신 양심적이고 가치 있는 수공예품이 자리를 되찾길 꿈꾸었는데,¹¹⁾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아 1870년 모리스는 미술공예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회화와 조각 등의 순수예술이 아닌 생활예술의 중요성을 설파하여 역사적인 전통양식을 개혁함으로써 현대 디자인의 문을 연 운동이었다.

19세기 영국의 비평가와 미술가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공예 기술의 전반적인 쇠퇴에 불만을 느꼈고, 19세기 초반의 건축이나 공예품, 복식 등에는 전시대의 미의식에 매달린 지나친 양식에 기계의 성능의 그릇된 적용까지 가미되어 저속함을 더해주었다. 또한 전쟁이나 별다른 외교적 마찰 없이 진행된 산업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제국주의에 의한 영토 확장은 외면적으로 서구사회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것으로 보이게 했지만, 이러한 상황의 허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실증주의적 사고방식과 인류사회의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에 대한 반항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또한 현세 부정적 허무주의 경향에 영향을 받아 쾌락주의적 특성을 보인 유타주의(aestheticism)와 문명의 몰락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반영한 퇴폐주의(decadence)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아르누보라는 신예술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아르누보는 세기말이라는 현실을 도피하고 외부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주로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아르누보 예술가들은 직선을 피하고 소용돌이치거나 서로 교차하는 곡선을 주로 사용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곡선을 통해 자연 생물의 유동적 형태를 표현하고 사물의 본질이나 자연의 창조활동의 유기적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누보의 곡선은 구불구불하게 물결치고 음악적으로 울동하며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하고 섬세하며, 환기시키는 느낌을 지닌 상징적인 선으로 표현되었다.¹²⁾ 황홀한 행복감과 공중에 떠도는 느낌,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환상 혹은 대상 이면에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시각적, 감각적, 상징적으로 통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누보 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중 하나는 일본 및 동양예술이다. 모든 장르에 파급되어 세련된 여백처리와 공간이용, 자유로운 화면 배치와 평면적인 처리 기법, 선과 윤곽의 강조, 좌우 비대칭의 원리 등의 특징을 야기했다. 이후 미국 취향은 세계적인 교통의 발달과 만국박람회 등 국제적인 문화교류 및 유럽제국의 식민지 정책 등으로 인해

일본 외의 동양,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풍물과 정서를 동경하거나 그것을 통해 예술적 효과를 표현한 것을 새롭고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비교적 단명했던 이 시대적 사조는 1890~1910년 사이 독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즉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풍미한 양식을 일컫는데 그것은 대규모로 통일적 예술사조가 나타났던 예술사의 마지막 사례이기도 한 아르누보는 새롭고 풍부한 시대를 배경으로 과거의 전통을 과감히 개혁하고 생활전반에 예술을 활용하고 적용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2. 아르누보의 조형적 특성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은 식물형태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더욱 새로운 미를 요구하여 유기적인 선으로 모든 디자인의 근본을 두었다. 자연은 재 양식화되고 직관에 의해 추상화 되어 새로운 스타일과 종합예술의 지평을 열어 19세기 후반에도 계속적으로 디자인의 근원으로서 영향을 미쳤다.

건축에서의 아르누보 양식은 새로운 형태의 장식으로서 자연의 형태에서 따온 곡선이나 기하학적인 장식이 그 특징으로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가우디(Antonio Gaudi y Cornet, 1852, 6, 25~1926, 6, 10)는 유기적 곡선의 구조적 형태미를 자연적인 곡선들과 연결시켜 면을 만들어 상호 연관하여 구조적인 3차원적인 형태를 창조적으로 대담하게 나타내었으며, 유동적인 곡선의 사용과 유기적인 특성으로 20세기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곡선보다 직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특색으로 식물의 형태도 직선으로 단순화시켜 20세기 합리주의를 예고하였다.

아르누보 예술가들의 ‘모든 예술의 통합’이라는 노력은 공예를 통해 꽃피웠기 때문에 이 시기의 조형적 걸작품은 공예부문에서 가장 많이 보였다. 공예의 주요부분은 가구이고, 그 외에도 금속공예, 스테인드글라스, 램프, 유리, 장신구 등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가구의 특성을 보면, 유기적 모티브를 조용하고 섬세하게 사용했는데, 식물형태에서 보면 줄기가 반복되고 수직선들이 우아하게 굽은 마디에 의해 접합 부분에서 단절되거나 여러 가지를 영키게 하거나 가지들을 번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형상화시켰다. 아르누보의 가구부분은 다른 어느 장식 예술보다 확실하게 지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구와 달랐다. 가구는 아르누보에 있어서 좋은 예가 되었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확고한 위치를 확립했다.

장신구 분야에서도 식물모티브나 유기적인 곡선을 이용한 많은 작품들이 창출되었는데, 꽃과 길게 이어지는 식물줄기 등을 모티프로 하여 진주나 에나멜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아르누보의 공예는 표현방법과 주제에서 전체적으로 식물 모티브를 장식요소로 함축적이거나 자연 그대로의 자연물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요소까지 가미하여 유기적인 모티브를 섬세하게 사용하였으며,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요소로서 각 특성에 맞추어 발전하였다.

아르누보 공예의 결과로서 가장 중요한 공헌은 실내디자인의 예술에서 통일성을 확립시켰다는 것이다. 장식·기능·구조·소재의 연관성을 도입하여 건축의 외부와 실내, 그리고 장식품들이 장식적으로 통합되어 이해되었고 이는 각 나라에서 새로운 면모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타일의 억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아르누보의 통일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¹⁴⁾

아르누보 회화의 전체적인 성격을 구성하는 것은 라파엘전파와 상징주의 및 표현주의적 경향이다. 아르누보는 형체로 표현하는 것이 평면상에서 표현하기가 보다 더 쉬웠기 때문에 회화적이라기보다는 디자인적인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누보 회화는 다른 조형분야와 같이 표현력이 풍부한 유동적인 곡선 사용과 흐릿한

배경 위에서 거의 환각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화려하고 밝은 색채를 보여주었고 상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다루었으며, ‘상징’이 관념에 구체적인 형태를 준다고 보고 환기적이고 장식적인 형태의 수단을 이용해서 관념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점에 특징이 있다. 그 기능은 장소나 건물을 장식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환경과의 조화가 요구되었으며, 회화 역시 실용성이 있는 예술이 되도록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르누보의 조각은 어떤 대상을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몸짓을 함유하고 있는 어떤 형상의 구상적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조형적 형태가 묘사에서 상징적인 몸짓으로 발전해 나가 추상 조각으로 귀착되었다. 건축에 장식을 쓸 것인 것이 아르누보에 와서 대부분 의미를 잃었지만 19세기 들어 기계적 대량생산 체제로 인해 사라지다시피 한 조각 소품들은 아르누보에 와서 다시금 호황을 누렸다. 아르누보 조각가들은 선의 사용에는 대체적으로 파도치는 유기적인 곡선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식물의 넝쿨, 꽃, 비틀려져 올라간 줄기와 소용돌이 장식에서 표출되었다. 아르누보 조각에서 주로 사용한 주제에는 여성과 식물이나 곤충, 물결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여 주제로 채택한 자연물과 작품에 있어서의 기능을 일치 시키고자 실용성이 중요시 되었다고 본다. 작가들은 순수조각 분야보다는 장식조각 분야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여 ‘미의 대중화’를 추구했던 아르누보의 이상에 부응하였다.

아르누보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곡선적 조형감각은 여성의 복식에도 영향을 끼쳐 당시의 무겁고 부담스러운 버슬 스타일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하였다. 1890년대 초에는 허리를 더욱 꼭 맞게 하고 스커트 단이 부드러운

〈표 1〉 아르누보의 조형적 특징

구분	선 / 특징	색채	문양	사례
건축	비대칭적, 역동적 부드러운 선의 반복적 사용 자연스러운 형태의 장식 뛰어난 조형성	밝고 환한 색채 파스텔 색채	식물의 모티브 꽃, 숲 달팽이 비둘기	 안토니 가우디 카사바트요
공예	실내디자인과의 통일성 세부묘사 기법 상감기법 여러 가지 재료 사용	자연주의적 색채 확실하고 차분한 색	그래픽적인 곡선 꽃이나 자연물 추상적인 선 기하학적 요소	 르네 탈리크 유리공예
회화	유동적인 곡선 상징주의 및 표현주의적 경향 디자인적인 표현양식 일본미술의 영향	화려하고 밝은 색채 이국적인 색채 황금색	여성, 기호 식물문양 추상적인 패턴 그래픽적인 선 유동적인 곡선	 알폰스무하 에메랄드
조각	색면의 대비 형태의 왜곡	청동, 점토의 자연색	여성 식물의 넝쿨 물결문양 곤충문양	 에른스트 바를라흐 노래부르는 남자
패션	C자와 S자의 곡선 우아하고 여성적 이국적이고 장식적 비대칭적 장식구조	자연주의적 색채 파스텔톤 일본풍의 황금색	식물의 줄기 꽃문양	 S-curve style

플레이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몸을 가늘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허리에서 헴라인(hem-line)까지의 곡선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아르누보 양식의 부드럽고 유기적인 곡선의 아름다움과 일치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고어드 스커트(gored skirt)가 고안되었다. 이 방법은 더욱 정교해져 1890년 말에는 허리에서 힙 선에 걸쳐 더욱 가늘게 정리된 실루엣이 나타나는데 가슴을 똑바로 펴고 배를 압박하기 위해 코르셋이 등장하여 전형적인 S커브(S-curve)의 실루엣이 되었다. 이 형태는 1900년경부터 1910년경까지 유행했던 스타일로 특수한 코르셋에 의해 가슴을 새처럼 나오게 하고 스커트는 트럼펫처럼 퍼지게 하여 옆으로 보았을 때 S자형을 이룬 형태를 말한다.¹⁵⁾ 또한 미국인 화가 찰스 데이나 깁슨(Charles Dana Gibson, 1863~1945)이 즐겨 그린 의상 스타일이라 하여 불리어진 ‘깁슨 걸 스타일(Gibson girl style)’은 하이네크에 양다리 형이나 퍼프소매를 하여 어깨를 넓히고 허리는 가늘게 조이며 스커트는 종형을 이루는 실루엣이 나타났다.¹⁶⁾ 이처럼 패션에서도 아르누보의 모든 경향인 식물의 줄기처럼 흐르는 듯한 C자와 S자의 곡선으로 우아하고 여성적이며 신비스러움을 표현하였고, 감각적, 향락적, 귀족적, 유희적인 면과 과잉장식 등이 이 시대의 패션에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아르누보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비대칭의 요소가 의상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응용되었고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이국적인 색상과 장신구들이 패션에서도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누보 예술 양식에는 덩굴식물과 백합과 식물, 이국적인 꽃, 물결과 노니는 백조, 머리칼을 휘날리는 여인 등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여기에 율동적인 선과 줄무늬, 정형화된 꽃, 기하학적 형태 등이 가미된 자유분방한 기구와 가옥의 전면부 등의 모습도 더해진다. 종례의 건축 및 공예가들이 그 전형을 그리스 로마 혹은 고딕으로부터 구한 것에 반해 아르누보 작가들은 모든 역사적인 양식을 부정하고 자연에서 유래되는 아름다운 모티브를 삼아 새로운 표현을 했다.

이처럼 아르누보의 조형적 특징은 감각적인 곡선을 주제로 하는 표면적인 양식 미로, 선은 비대칭적이고 역동적, 율동적인 곡선을 사용하였고 색채는 밝고 환한 파스텔 색채와 황금색, 일본풍의 영향으로 이국적인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문양은 식물의 모티브로 식물의 줄기나 꽃문양과 여인의 형상을 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아르누보 양식이 표현된 건축, 공예, 회화, 조각,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양식의 특징을 <표 1>로 정리하였다.

3. 매드슨의 아르누보 양식에 관한 분류

본 연구에서는 아르누보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매드슨의 아르누보의 4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실물작품을 그 분류에 따라 제작하였다.

이에 아르누보에 관해 연구한 매드슨은 그의 저서 「Art Nouveau」에서 이 양식을 네 개의 개념¹⁷⁾을 살펴보면 첫째는 추상적·구상적·상징적 아르누보(abstract and structural symbolical Art Nouveau)이다. 식물이 양식화되어 나타난 다이내믹한 선의 리듬은 아르누보의 본질적 특성을 이루며 추상적·구상적·상징적 아르누보 양식 주제를 추상적이고 다이내믹한 감각으로 구성한 것으로 아르누보 양식의 초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floral and organic Art Nouveau)이다. 아르누보 초기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구성은 더욱 미묘해진 선으로 발전되어 다분히 세기말적인 정치와 세련미를 갖게 되었다. 주위의 자연물, 특히 꽃을 주제로 하였고 유선형의 파도치는 듯한 율동감을 특색으로 하며 항상 구체적인 꽃의 형태를 잃지 않고 있다.

셋째는 선적·평면적·상징적 아르누보(linear, two-dimensional and symbolical Art Nouveau)이다. 후기의 아르누보 양식에 직선적 경향이 첨가된 것으로 식물의 줄기와 같은 유기적인 선이 추상적 구상과 만나 기묘한 율동감

을 주며 이 양식은 식물의 유기적 구성이 주던 사치스럽고 여성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보다 단순화된 자연적 형태의 장식미가 강조되었다.

넷째는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constructive and geometrical Art Nouveau)이다. 아르누보풍의 구성주의로 순수한 곡선적 장식미를 벗어나 직선, 삼각형, 사각형, 사선 등의 기하학적인 선과 구도를 주로 응용하여 기능을 중시한 현대적 감각으로 뚜렷하게 발전시켜 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누보의 형성과정에서는 라파엘 전파와 고딕, 로코코 양식, 동양 예술의 이국적 취미, 상징주의와 유미주의, 신비주의 사상 등 다양한 양식이 도입되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식물지향의 비대칭적인 곡선을 모티브로 하는 「유기적 아르누보」와 직선 형태를 위주로 단순화된 기하학적 패턴을 지향하는 「기하학적 아르누보」로 구분될 수 있다.¹⁸⁾ 이러한 아르누보 양식은 기존의 예술개념인 응용예술과 순수예술의 구분에서 탈피하고 예술의 상호 교류와 융합을 중시하여 후에 공업주의와 예술을 접목시켜 예술의 민주화, 생활화를 추구했던 아르데코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예술에도 영향을 끼쳤다.¹⁹⁾ 비교적 단명했던 이 시대적 사조는 형태와 장식의 문제를 동시에 관여하였고 대체로 2차원의 관점에 머물렀으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²⁰⁾과 새롭고 풍부한 시대를 배경으로 과거의 전통을 과감히 개혁하고 생활전반에 예술을 활용하고 적용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III. 아르누보 문양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및 표현기법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 중의 하나가 메이크업이다. 메이크업은 집단이나 개인의 표현수단이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써 수세기동안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해오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표현기법이다. 신체를 바탕으로 한 메이크업은 인간이 치열한 생존경쟁시대에 주위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의 하나로 행해졌다. 또한 피부의 외관이나 색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특유의 사회적 욕구라고 간주되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피부에 색을 칠하기도 하고 문신을 넣기도 하고 형태를 바꾸기도 하였다.²¹⁾

복식의 한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은 토털패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오랫동안 사회심리학자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 되어왔으며 시대적인 배경, 문화, 패션경향, 미의식,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는 현존하는 것이지만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처럼 아트 메이크업의 역사 또한 원시 인류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왔다.²²⁾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대한 표현예술로서 메이크업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의 한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술과 인간이 조화된 독창적 예술로서의 아트 메이크업은 고정된 틀을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수단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

아트 메이크업(art make-up)이란, ‘아트(art)’와 ‘메이크업(make-up)’의 합성어로 미적 용도로 사용되는 메이크업에 예술성을 부여한 것으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의 독특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다. 아트 메이크업은 단지 예술적 이미지만을 중시하여 인간의 육체를 재 조형한 예술로서 새로운 현상, 새로

움의 추구, 새로운 현실성을 알리는 것으로 인체에 디자인한 것이며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형태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에 장식하고 개성적인 자아를 표현하는 미의 세계라고 볼 수 있다.²³⁾

한편, 이러한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기법들은 다양한데 그 기법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하여 자연물을 주제로 묘사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시켜서 비교적 보는 이로 하여금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회화적 기법, 나타나는 형상의 대상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모티브를 주제로 하며 조금 더 적극적인 예술적 행위로 간주되어 행위예술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그래픽적 표현기법, 바디 페인팅 물감과 빛을 결합한 과학적 바디 페인팅 기법인 UV 발광물감과 블랙 라이트 표현기법, 에어 브러쉬 도구를 사용하여 압축한 공기로 물감을 뿜어내어 원하는 부분을 채색할 수 있는 에어 브러쉬를 이용한 표현기법, 바디에 직접적으로 페인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상을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인체에 투영시킴으로서 간접적인 바디 페인팅을 하는 방법인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볼트캡 사용 등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모든 재료들은 아트 메이크업의 재료로 사용하는 오브제 기법, 그리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따라 표현의 다양성과 시각의 가능성을 넓힘으로써 다른 예술의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이미지의 제거와 보완 그리고 수정이 용이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표현기법이 있다.

이러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기법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기법

구분	특징	재료	사 례
회화적 표현기법	여러 가지 표현기능 가장 많이 사용 메시지전달이 용이 색상의 사용의 자유로움	메이크업 제품 바디페인팅용 물감 폴라쥬기법에 필요한 레이스,구슬 등 여러가지 재료	
그래픽적 표현기법	추상적인 모티브 즉흥적인 페인팅 행위예술의 수단으로도 간주	바디페인팅용 물감 메이크업 제품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	UV발광물감과 빛을 결합한 과학적인 기법	UV발광물감 UV라이트	
에어 브러쉬 표현기법	시간의 단축 그라데이션의 용이함 정교하고 섬세함	에어브러쉬 건 에어브러쉬용 물감 스텐실 도구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표현기법	형상을 프로젝트 사용으로 인체에 투영 디지털의 기술이 필요 간접적인 바디 아트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빛과 그림자	
오브제 활용 표현기법	다양한 재료의 사용 과장이나 왜곡된 표현 용이 제작과정의 어려움	마스크, 깃털 등 볼트캡 피어싱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	과학적인 표현방법 표현의 영역 확대 제거, 보완, 수정 용이	하드 웨어 소프트 웨어 합성할 이미지	

이처럼 아트 메이크업은 주제에 연관된 이미지를 추상적 화법, 구체적인 묘사, 다양한 문양이나 이미지의 형상 등으로 표현하여 작품으로 완성한다.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트 메이크업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그 안에 자리 잡은 무의식의 세계를 표출하고 있으며 일반대중에게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특히 무대예술이나 공연예술에서는 연출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미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대분장, 의상, 세트, 조명과 음향 등의 종합적 구성을 통해 하나의 예술세계로 시도되고 있다.²⁴⁾

2. 아르누보 문양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종류

본 장에서는 아르누보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사례를 매드슨의 아르누보 문양의 4가지 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체에 행한 아트 메이크업의 사례는 많은데 비해 아르누보 문양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협소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아트 메이크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비교적 작품의 이미지를 많이 검색할 수 있으며 아르누보 문양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한 작가들의 작품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아르누보 문양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는 세계적인 바디페인팅 아티스트인 엠마 핵(Emma Hack)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엠마 핵의 작품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바디페인팅과 퍼포먼스가 제품의 컨셉과 잘 융합되면서 바디페인팅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로 손꼽히고 예술적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스타일을 사용하여 바디페인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두 번째로는 마르코 게라(Marco Guerra)와 야스미나 알라우(Yasmina Alaoui)의 작품이다. 그들의 작품 중 『Thousand and One Dreams』의 작품들은 마르코 게라와 야스미나 알라우의 작품으로 먼저 바디에 투영할 영상을 촬영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 후 어두운 공간에 모델을 세워 인체에 아르누보적 곡선 문양을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인체에 투영한 간접적인 바디아트 형태이다. 이 작품들은 사진과 예술적인 패턴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절묘한 야스미나 알라우의 코란의 삽화와 이슬람교의 건축양식을 영향 받은 패턴 사용법과 마르코 게라의 사진 인물 연구의 조합이다. 『Thousand and One Dreams』의 시리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감정으로 현대에 창조한 풍부한 서정적인 문화유산인 가진 신비한 아름다움과 고전적인 이미지를 결합한 작품이다.²⁵⁾

국내 작가로는 첫 번째로 김지연의 작품을 예로 들었다. 이 작가는 사람의 얼굴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화지라 생각하여 메이크업과 일러스트를 접목시켜 이야기를 담은 환타지 메이크업을 선보이고 있다. 이 작가를 선택한 이유는 화보를 구할 수 있는 용이함과 기법과 오브제 사용의 정돈이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주로 브러싱 기법으로 라이닝과 아쿠아 칼라, 그리고 비즈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독특한 컬러감각으로 섬세한 연출과 여성적인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최경옥은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의 논문에서 아르누보의 문양을 응용한 바디아트작품을 매드슨의 4가지 이론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작가이다. 이 작가는 회화적 표현기법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사실적인 입체감과 아르누보 문양의 생동감이 강조된 바디아트의 연구로, 본 연구와 작품 제작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보다 앞서 매드슨의 아르누보 문양의 분류에 따라 연구하였다. 따라서 최경옥은 아르누보 문양을 응용한 바디아트 작품사례를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살펴볼 수 있었던 작가이다.

다음에서는 선정 작가들의 작품사례들을 매드슨이 구분한 4가지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추상적 · 상징적 · 구상적 아르누보 문양의 아트 메이크업

식물의 이미지를 양식화하여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아르누보 문양의 작품을 보면, 먼저 엠마 핵의

『solar』는 추상적·구상적·상징적인 아르누보 문양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이유는 브러싱기법으로 태양의 모습을 상징적이고ダイナミック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다소 반복적인 형태를 띄고 있지만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황금색과 짙은 블루색의 강한 대비로 역동감을 주었다. 다음으로 마르코 게라와 야스미나 알라우의 작품에서는 온몸을 휘감고 있는 유기적이고 추상적인 식물적인 모티브가 곡선을 그리며 다이내믹한 율동감을 주며 인체의 곡선을 장식하면서 동시에 곡선미를 강조한 작품으로 추상적·구상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1〉 엠마 핵, 『solar』
(출처: <http://www.emmahack.com.au>)



〈그림 1.2〉 마르코 게라와 야스미나 알라우
『Thousand and One Dreams』
(출처: <http://www.onethousandandonedreams.com>)

2)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문양의 아트 메이크업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문양은 초기의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문양에서 자연물 중 특히 꽃을 주제로 하여 유기적이고 좀 더 섬세한 곡선으로 발전하였다.

첫 번째로 마르코 게라와 야스미나 알라우의 작품은 식물의 줄기와 꽃의 유기적인 형태를 인체의 얼굴과 바디부분에 마치 제 2의 피부처럼 보이게 율동감이 있는 곡선으로 꼼꼼하고 섬세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에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문양으로 분류하였고, 김지연의 『찬란한 그늘』은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꽃 모티브의 조합인 레이스의 문양을 비대칭적 변화의 율동감과 연속적인 질서감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2.1〉 김지연, 『찬란한 그늘』
(출처: 『메이크업 판타지』, 2008, p.131)



〈그림 2.2〉 마르코 게라와 야스미나 알라우
『Thousand and One Dreams』
(출처: <http://www.onethousandandonedreams.com>)

3) 선적·평면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의 아트메이크업

선적·평면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은 유기적인 곡선양식에 추상적인 직선의 경향이 첨가되어 보다 단순화

된 자연미와 강한 리듬감을 나타낸다.

김지연의 작품 『화안』은 바람과 꽃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표현 방법에 있어서 모든 이미지를 접이나 선, 면으로 단순화시켜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단순화와 강렬한 배색은 시각적으로 강한 이미지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선적·평면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최경옥의 논문에서 선적·평면적 아르누보 문양의 작품으로 구분된 『일탈』은 앙리 반 데 벨데의 벽지 디자인의 문양을 흑인 누드의 여성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맵핑하였다. 여기에서 보이는 문양의 이미지는 연결된 사슬처럼 고리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나를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일 것 같은 도미노 형상을 하고 있는데 화살 같은 유연함과 강한 기계적인 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²⁶⁾



〈그림 3.1〉 김지연, 『화안(花顔)』
(출처: 『메이크업 판타지』, 2008, p.80)



〈그림 3.2〉 최경옥, 『일탈』
(출처: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2009, p.122)



〈그림 3.3〉 앙리 반데 벨데, 벽지디자인
(출처: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2009, p.121)

4)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 문양의 아트메이크업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 문양은 아르누보의 생동감과 우아함을 가진 직선적인 구조로 기능적인 미로 나타났다.

엠마 헉의 작품은 곡선 양식에서 벗어나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서로 다른 형태인 원과 사각모양을 융합하고 조화롭게 표현하였기 때문에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였고 이 작품은 사각의 형태를 이용하여 좀 더 힘차고 강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으로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최경옥의 작품 『절제』는 구성적 기하학적인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된 크리스토퍼 드레서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모티브로 하여 일관되고 강한 힘이 느껴지는 선의 대칭적이며 기하학적인 조형적 형태를 나타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 문양의 아트 메이크업의 사례들의 특징은 아르누보의 곡선적이고 유기적인 선들에서 벗어나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좀 더 단순하고 현대적인 구성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4.1〉 엠마 헉
『Circles and Squares』
(출처: <http://www.emmahack.com.au>)



〈그림 4.2〉 최경옥, 『절제』
(출처: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2009, p.134)



〈그림 4.3〉 크리스토퍼 드레서,
『스테인드 글라스』
(출처: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2009, p.133)

IV. 작품제작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매드슨의 4가지 이론에 따라 분류된 아르누보 모티브를 사진에 나타난 인체의 모습에 적용하여 아르누보 양식과 인체의 아름다운 곡선의 조화로움을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1. 작품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아르누보 시대의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나타난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과 문양을 중심으로 여러 기법들을 응용한 인체사진을 통해 아트 메이크업의 한 장르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에서는 아르누보 모티브를 매드슨의 이론을 바탕으로 추상적·구상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문양, 선적·평면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 그리고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제작의 방법으로는 아르누보의 자연주의적 모티브와 유기적인 곡선 그리고 비대칭적인 패턴을 활용하여 물감, 글리터 젤, 색연필 등을 이용한 드로잉기법과 비즈, 스펅글, 금박, 은박 등의 오브제를 이용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색채는 아르누보의 문양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인체사진은 모두 흑백처리 하여 피부색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아르누보 문양은 파스텔 색채와 자연적인 색채 그리고 화려한 황금색의 이국적인 색채를 사용하였다.

2. 작품해설

1) 추상적·구상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1) 작품 1 - 열정

응용이미지는 「렌의 교회」라는 저서의 표지그림으로, 이는 아르누보 양식의 최초의 작품으로 꼽힌다. 종래의 딱딱하고 규칙적인 느낌의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흐르는 듯한 동선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리듬감이 나타나며 외면보다는 내재하고 있는 실재와 실체를 추상적이면서 상징적 형태로 표현하였으므로 추상적·구상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였다. 인체사진은 보다 열정적인 강한 힘의 표현을 위해 남자모델의 목 부분의 사진을 선택하였고 남성적이고 불꽃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들을 목선의 힘줄 하나하나에 담아 생동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다이내믹한 느낌을 추상적으로 변형된 튜립의 형태로 표현해 똑같은



〈그림 5.1〉 맥머도
「렌의 교회」 저서의 표지, 1883
(출처: 「근대건축의 흐름」, 2008, p.33)



〈그림 5.2〉 남자모델 목 사진



〈그림 5.3〉 열정 550×790mm

〈그림 5〉 추상적·구상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비대칭을 이루면서 목선을 감싸듯이 내려오는 S자형과 C자형 곡선을 위주로 반복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표현기법으로는 회화적 표현기법으로 색연필을 재료로 하여 드로잉 하였다.

2)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문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1) 작품 2 - 순수

응용이미지는 알폰스 무하의 『꽃』으로 꽃을 소재로 하여 율동적이고 우아하게 흐르는 선을 특징으로 신비스러움을 나타내었으므로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문양으로 분류하였다. 여성적인 꽃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가늘고 길게 선적으로 표현된 여성의 손을 꽃의 모티브와 조합하였다. 여성의 순수하고 순결하며 사랑스러운 모습을 마치 한 송이의 백합에 함축하여 섬세한 곡선으로 신비함과 몽환적인 요소로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흐드러진 꽃잎을 리듬감 있는 유려한 선으로 묘사하였고, 그 선들을 하나의 통일된 흐름으로 형성시켰다. 표현기법으로는 회화적 표현기법 중 드로잉기법으로 아크릴칼라와 색연필을 이용하였고 수술부분은 콜라주기법으로 진주 씨 모양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부분적인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백합의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절제된 선과 흰색으로만 표현하였다.



<그림 6.1> 알폰스 무하, 『꽃』, 1897
(출처: <http://blog.naver.com/mookat/90024149933>)



<그림 6.2> 여자 모델 손 사진



<그림 6.3> 순수 257×364mm

(2) 작품 3 - 생명

응용문양으로는 알폰스 무하의 『슬라비아』라는 작품 배경의 나뭇잎 모티브이다. 이 그림은 여인과 식물을 소재로 하여 여성적이고 아름답고 섬세하고 생기 있고 부드러운 색감으로 자연적인 요소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자연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중 생명력을 효과적으로 표현



<그림 6.4> 알폰스 무하, 『슬라비아』, 1895
(출처: 『알폰스 무하』, 2005, p.86)



<그림 6.5> 남자 모델 발 사진



<그림 6.6> 생명 297×325mm

<그림 6>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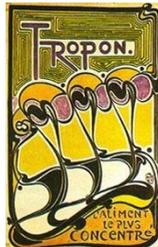
하기위해 힘줄이 드러난 남성의 발등사진에 나뭇잎을 모티브로 삼았다. 발등의 강한 힘줄을 나무의 잔가지로 형상화 시켜서 나무의 살아가기 위해 힘있게 뻗어나가는 생명력을 나타내었다. 표현기법으로는 회화적 표현기법 중 드로잉기법으로 나뭇가지와 나뭇잎의 자연스러움과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표현을 살리기 위해 수채화물감을 이용하여 그라데이션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3) 선적·평면적·추상적 아르누보 문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1) 작품 4 - 기억 속으로

이 작품은 앙리 반 데 벨데의 『트로폰』을 응용하였다. 이 포스터는 아르누보의 추상적 포스터 가운데 최고에 속하는 작품으로 완전히 비자연적인 느낌을 준다. 선이 갖는 힘을 웅변해주는 반 데 벨데의 이론을 특히 아름답게 예시해 주는, 하나로 모이는 나란한 이 선들이 이 포스터의 특징이다.²⁷⁾ 식물의 유기적인 곡선과 추상적인 구상이 합하여 다이내믹한 리듬감을 주고 단순화된 장식미를 보여주므로 선적·평면적·상징적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였다.

식물의 곡선적 모티브의 유기적이고 추상적인 선들을 콧바퀴의 곡선에 조합하여 선과 면이 갖는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어릴 때든 언제든 좋든 나쁜 것이든 많은 기억과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들이 담겨있는 머릿속으로 가는 통로인 콧바퀴에 그것들을 아르누보 모티브로 융화시켜 하나하나에 담았다. 표현기법으로는 회화적 표현기법 중 드로잉기법으로 아크릴 칼라와 글리터 젤을 사용하여 비비드 칼라로 나타내었고 또한 콜라주기법도 이용하였는데 그 재료로는 크리스탈 비즈를 사용하여 글리터 젤과 함께 화려하고 반짝이는 느낌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7.1> 앙리 반 데 벨데, 『Tropon』, 1899
(출처: 『어떻게 이해할까? 아르누보』, 2007, p.7)



<그림 7.2> 남자모델 귀사진



<그림 7.3> 기억 속으로
297×420mm

<그림 7> 선적·평면적·추상적 아르누보 문양

4)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 문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1) 작품 5 - 삶의 열매

이 작품은 스토클레 저택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중간부분의 모티브를 응용하였다. 1905년 이후 구스타프 클림트는 금색 면을 선호하며 양식화된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나선형, 폭이 좁은 직사각형, 삼각형, 원, 타원형 등의 기하학적이거나 추상형태들을 실제 대상에 가까운 형태들과 조합하였다. 이 벽화는 장식적으로 표현된 형상들이 전체를 주도하는 나선형 나무의 이미지 속으로 융화되어있으며 인간의 형상이 추상적인 모자이크 장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 문양으로 구분하였다.

인간의 삶이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와 생명의 나무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팔을 교차하고 있는 생각에 잠

긴 듯한 사진을 배경을 하였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이루었던 일과 성공, 좌절 등 살아온 흔적들 그러면서 느껴왔던 기쁨과 환희, 고뇌와 번뇌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장식적으로 표현된 색의 형상과 나선형나무의 추상적인 모티브로 나타내었다. 표현기법으로는 회화적 표현기법 중 드로잉기법으로 사진 속의 피부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비쳐지듯이 수채화 물감으로 명암을 나타내었다. 장식에는 콜라주 기법으로 금박, 비즈, 스펅글의 오브제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질감을 살렸다. 색채는 응용된 이미지와 같이 화려한 비비드 톤과 황금색을 이용해 나타내었다.



〈그림 8.1〉 구스타프 클림트
『The Tree of Life』, 1905-09
(출처: 『구스타프클림트의 회화연구』,
2009, p.36)



〈그림 8.2〉 남자모델 상반신 사진



〈그림 8.3〉 『살의 열매』
210×300mm

〈그림 8〉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 문양

V. 결론

현대사회의 자연주의적 경향은 자연스러운 미와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과 꿈, 그리고 미래에까지 새로운 창의 성과 감각을 불어넣어 인간의 새로운 표현 양식과 재창조를 통해 다양한 예술작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자연주의적 경향의 아르누보의 특징들을 인체라는 본질적인 자연물에 독창적이고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적용해 보는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누보 문양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사례들을 매드슨의 4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여 각 작품에 나타난 아르누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작품에 나타난 특징들은 형태적 특성에 따라 식물지향의 비대칭적인 곡선을 모티브로 하는 유기적 아르누보와 직선 형태를 위주로 단순화된 기하학적 패턴을 지향하는 기하학적 아르누보로 구분되었다.

둘째, 아르누보 문양을 매드슨의 4가지 개념으로 분류된 추상적·구상적·상징적인 아르누보,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선적·평면적·상징적 아르누보, 구성적·기하학적 아르누보 양식을 각각의 개념의 특징으로 적용하여 인체 사진에 아트 메이크업을 응용함으로써 아르누보 양식과 인체의 곡선을 조합하여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은 아르누보 양식에서 보여 지는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곡선의 장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기법들을 통한 아트 메이크업의 새로운 표현 방법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를 통하여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방법을 여러 각도로 응용함으로써 아트 메이크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일회적인 단점을 보완하여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부여한 새로운 창작영역을 실현해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이미경 (1992). 아르누보 양식에 나타난 무늬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2.
- 2) 이경희 (2008).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회화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0.
- 3) 김경희 (2004). 식물의 형태와 기하학의 요소가 결합한 장신구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1.
- 4) 김미영 (2003). 아르누보 양식의 패션 디자인 연구 -flower pattern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5.
- 5) 손지혜 (2006). 찰스 레니 맥킨토쉬(Charles Rennie Mackintosh)의 의자 조형성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9.
- 6) 윤성희 (1988). 아르누보 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3.
- 7) 최경옥 (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38.
- 8) 공영희 (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 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07.
- 9) 황지호 (2007). 19세기 상징주의 회화를 응용한 Body painting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4.
- 10) 김영나 (1996). 서양현대미술의 기원 1880~1914, 서울: 시공사, p.104.
- 11) 김경은 (2007). 아르누보 양식을 이용한 식물 이미지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12) 정임전 (2006). Art Nouveau 양식을 통해 본 패션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조형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2(2), p.433.
- 13) 김경은 (2007), 앞의 논문, p.8.
- 14) 이미옥 (1996).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 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14(-), p.590.
- 15) 이정옥 외 (1995).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 출판사, p.327.
- 16) 신상옥 (1994).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296.
- 17) 정홍숙 (1981). Art Nouveau 樣式이 現代衣裳에 미친 영향, 복식, 4(-), pp.29-31.
- 18) 이종현 (1987). 아르테코 건축의 양식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17.
- 19) 김미영 (2003). 앞의 논문, p.29.
- 20) 이재호, 김영숙 (1997). 아르누보 디자인의 미학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대학논문집, 3(-), p.372.
- 21) 鹽修 早川律子. Grahon, J, A. 외 (昭和63). 化粧の 心理學, 東京: 週刊粧業, pp.3-4.
- 22) 강병석 (1984). Total Fashion으로서의 make-up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23) 김세희, 이정민 (2007). 포토샵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메이크업디자인 학회지, 3(3), pp.2-3.
- 24) 한명숙 (2004).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 25) 오페라 갤러리 (검색어: ALAOUI & GUERRA), 자료검색일 2009, 6, 16, http://www.operagallery.com/artist/ALAOUI+-+GUERRA_810%3B0%3B0.aspx
- 26) 최경옥 (2009). 앞의 논문, p.119.
- 27) 카린 자그너, 심희섭 역 (2007). 어떻게 이해할까? 아르누보, 서울: 미술문화, p.107.